

그리운 이리나시/이리나북



허영순 /저

그러고보면 내가 지금 그리고있는것은 농촌에 묻고
온 그 거의 광열에 가까운 열정이고 새파란 마음이고
하늘을 찌를듯한 패기이고 불타던 정열이었다. 정말
그 시절이 그림다. 그 시절의 내 젊음과 패기, 정열이
그림다.



연변인민출판사

그리운 아카시아나무

허영순 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최동일

책임교정: 김홍화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刺槐情思: 朝鲜文 / 许英顺著. —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1

ISBN 978-7-5449-0244-1

I. 刺… II. 许… III. 散文-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6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043650号

刺槐情思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责任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9 字数: 24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244-1 (民文)

版次: 2008年1月第1版

2008年1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14.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차 례

수 필 편

어머니가 넘은 아리랑 열두고개	1
바다의 색깔	6
게으른 엄마	11
세월은 량해를... ..	15
뒤늦은 깨달음	18
깨 달 음	24
항상 감사한 마음	27
늑고싶다	30
그리운 아카시아나무	34
추억의 앨범	39
친구	43
동네복	48
어머니의 아픔	54
사랑은 량만속에서 추억으로 남는다	58
말이란 숙명때문에	62
야속한 세상과 외면당하는 진실	68
약속	72
내리사랑	75



그리운 아카시아나무

내가 선글라스를 낄 때	80
추억은 나뭇대로 아름답다	85
지천명에 떠올리는 생각	90

사 회 편

교육이 외면된 구석	95
“ 룡 ” 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101
결혼비용투시록	107
결혼부조풍과록	116
로총각들 왜 장가 못갔지?	123
자랑끝의 우려	130
리혼부모들을 진맥해본다	138
출국바람에 흔들리고있는 부부사이	148
생명을 사랑하라	158
물! 물! 물!	166

인 물 편

사랑을 심어가는 녀인	173
부주장으로 된 상해처녀	186
연출계의 새별	202
화백과 수석바이올린수	214
산골에서 날아오른 봉황	224



사 랑 편

함박눈	240
겨울바람에 실려온건	247
해탈	254
흰 장미 세송이	262
덧	270
사랑은 바보야!	277



어머니가 넘은 아리랑 열두고개

“올리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더니 정말 꿈만 같구나. 내 평생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어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외우는 말이다.

어찌 보면 어머니의 반평생엔 숨가쁜 올리막뿐이었던것 같다. 한고개 넘어나면 더 높은 고개가 불쑥 나타나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넘어야만 했다. 여섯식구가 사는 집 맡며느리였던 어머니는 모진 경제난에 허덕이었다. 1957년 10월, 딸 셋을 거느리고 만삭이 된 몸으로 전근하는 남편(나의 아버지)을 따라 훈춘에서 연길로 이사한 어머니는 석탄 살 돈이 없어 매일 5리 가량 되는 량식창고에 가서 벼겨를 이여다 땀다. 남산만한 배를 해가지고 하루에 다섯번씩이나 겨마대를 이고 다니느라면 서늘한 가을인데도 온몸은 물침봉이 되곤 했다. 아무리 애나게 가져와도 한끼에 벼겨 한마대가 아궁이에 다 들어갔다. 하는수없이 어머니는 역전으로 석탄 주으러 다녔다. 그해 12월, 내가 태어날 때까지 내쳐 다녔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고생하는걸 보다 못해 목숨처럼 아끼던 책을 팔았다. 밀차로 몇차 실어다 팔아도 18원밖에 안되었다. 그나마 훈춘에 계시는 할머니한테 보내고나니 집에는 또



한푼도 안 남았다.

생활난의 고개뒤에는 더 험한 고개가 있었다. 1958년도에 아버지가 더럭 “우파분자”감투를 쓴데서 로임이 두급이나 떨어졌다. 주변역국에서 사업하던 아버지는 일락천장 청소부로 되고말았다. 여기저기서 멸시의 눈길이 날아들었지만 어머니는 13년간 당의 교육사업에 충성해온 남편이 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했다는 사실을 근본상 믿지 않았다. 그 신념은 어머니를 이 악스레 살도록 했다.

1958년과 1959년도 이태사이에 아버지는 세번이나 병원에 입원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로임 54원 50전에서 꼭꼭 30원을 입원한 아버지에게 보내고 남은 24원 50전으로 다섯 식구의 생활을 유지해나갔다. 했기에 1년 가도 고기 한근 떠볼 형편이 못됐다.

아버지가 우파에 걸리자 도시호구이던 어머니는 강제로 농업사에 들어갔다. 먼 밭으로 일하러 갈 때면 어머니는 멀건 푸대죽을 싸가지고 다녔다. 그러다 점심때가 되면 으스스한 골짜기를 찾아 홀로 푸대죽을 후룩후룩 들이켰다. 그런 푸대죽마저 마련할수 없을 때가 있었다. 하여 남들이 밥곽을 들고 줄레줄레 모여들 때면 어머니는 집으로 점심 먹으러 간다며 슬며시 자리를 피했다.

어머니는 모든 괴로움을 속으로 삼켜야 했다. 남들과 말한댔자 동정보다 기사가 더해질것이였다. 남편과 말할수도 없었다. 성미 끝은 아버지가 옥생각을 품을가봐 도리어 위안해주는 어머니였다.

“여보세요, 마음을 널리 가지세요. 아무때든 문제가 해명될 날이 있겠지요.”



우수교원으로 활약하던 남편이었으니 아무때건 꼭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굳게 믿는 어머니였다.

1960년, 아버지는 로동개조를 떠났다. 어머니는 농사일을 하면서 홀로 딸 넷을 키워야 했다. 큰딸은 9살, 작은딸은 4살, 모두가 철부지들이었다.

1961년 이른봄이었다. 철모르는 어린것들의 주린 배를 달래주려고 어머니는 둥굴레뿌리를 파다가 엿을 달여주었다. 헌데 그 둥굴레엿이 결국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을줄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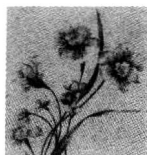
셋째딸 영옥이는 배고프던김에 그 둥굴레엿을 실컷 먹고 배가 아파 몸부림치다가 치료도 못해보고 7살 어린 나이에 숨이 켜다.

기별을 받고 모아산로동개조농장에서 내려온 아버지는 영옥이를 묻고는 상처입은 어머니 가슴을 위로해줄 새도 없이 그길로 돌아가야만 했다.

영옥의 죽음은 어머니에게 너무나 아픈 타격이었다. 어머니는 끝내 몸져눕고야말았다. 빨간 옷을 입은 딸이 달려오기에 두손을 뻗치면 손에는 아무도 잡히지 않았다. 환각이었다.

어머니는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나 무작정 공동묘지로 달려갔다. 딸의 묘는 구멍이 펑 뚫려지고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치마폭에 딸의 뼈를 주어 관에 다시 넣고 파묻은 어머니는 이튿날부터 매일 낫을 들고 홀로 공동묘지로 가서 지켰다. 무서움도 없었다. 며칠후 굶주린 개 한마리가 공동묘지로 오더니 미친듯이 딸의 묘를 파헤쳤다. 어머니는 낫을 들고 후닥닥 일어나 개를 쫓기 시작했다. 담배그루에 걸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정신없이 개의 뒤를 쫓았다...

어머니는 마침내 살아갈 용기마저 잃었다. 어느날 밤, 어



그리운 아카시나무

머니는 우리 자매들을 다 재워놓고 한밤중이 되자 홀로 기차길로 향했다. 마침 기차가 달려오고있었다. 어머니는 주저없이 기차길에 었드렸다.

“어머니, 죽지 말아요. 어머니가 죽으면 우린 어찌나요?”

세 딸이 어머니의 다리를 당기며 애처롭게 울었다. 어머니는 펄쩍 정신이 들었다. 둘러보니 사위는 먹칠한듯 캄캄했다. 환각이였다.

(내가 이게 무슨 망녕이람.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쩔까? 살아야 한다.)

어머니는 도정신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까지도 세상 모르고 자는 애들을 쓰다듬으며 어머니는 울고 또 울었다.

1959년 농업사에 들어간 때로부터 1978년도까지 어머니는 20년간 농촌에 있으면서 닥치는대로 막일을 했다. 달밤이면 집의 비료를 끄고나서 새벽밥까지 해놓고 생산대 일을 나갔다. 한번은 수레를 몰다가 소가 박아서 말뚝에 쳐놓는 바람에 어깨박죽뼈가 끊어졌다. 심장병이 심한 어머니보고 의사는 인젠 더는 일하지 말라고 재삼 당부했지만 일하지 않을수 없었다. 한공에 4, 50전밖에 안되는 세월에 어머니가 그렇게 일해도 해마다 빛이였다. 아버지가 그까짓 로임이나마 받는다고 생산대에서는 식량대를 들여놓아야 식량을 주었다. 단위의 돈을 먼저 쥐다 식량대를 물고는 달마다 로임에서 잘라내는 형편에 자식들에게 옷을 해 입힐 계제가 못되였다. 겨울이 돌아오면 어머니는 큰딸을 데리고 물레로 솜실을 뽑았다. 새벽까지 꼬덕꼬덕 줄며 실을 뽑아서는 물감을 들여 옷을 댔다. 솜실로 뜬 옷이었으니 고우면 얼마나 고왔으랴만 우리는 너무 좋아 겨울앞에서 물러설줄 몰랐다. 솜실세타의 따사로움, 그것은 결



국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우파의 자식들이라고 남들에게 수모라도 당할가봐 아글타글 신경을 쓰는 어머니의 그 눈물겨운 정성이었다.

“문화대혁명”때에도 아버지는 액운을 면치 못했다. 아버지가 1년간 간헐있는 기간 어머니는 매일 밥을 지어서는 애들을 시켜 아버지한테 날랐다. “혁명”에 열이 오른 사람들의 멸시의 눈총을 받으며, 일할 때도 옆에서 빈정거리는 소리들이 들렸다.

“우리는 책장을 번지듯 번지는데로 착착 된다니깐. 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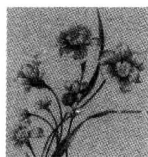
“그러게 말이요. 나그네덕에 근심걱정을 모르는것도 제 복이라니깐!”

어머니는 눈물을 속으로 삼키며 묵묵히 일손만 놀렸다. 말 새단지아낙네들도 침묵앞에서는 흥이 깨졌던지 입을 다물었다.

1979년, 아버지의 문제가 철저히 시정되어 정책시달을 받을 때까지 어머니는 20년을 사람들의 멸시속에서 살아왔지만 아버지나 우리 4남매앞에서 얼굴 찡그리는것을 못봤다. 마치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웃음을 지어주기 위해 사는것처럼.

마침내 어머니는 눈물과 땀, 멸시와 굴욕으로 뒤엉킨 인생의 아리랑 열두고개를 다 넘고야말았다. 나는 어머니가 잔약한 녀성의 몸으로 어떻게 그 험난한 어느 고개에서 꺼꾸러지지 않고 꺾끗이 걸어올수 있었을가가 의문될 때도 있다. 그것은 사랑의 힘이였으리라. 남편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그것이 어머니의 힘의 원천이었으리라.

찬란한 아침, 태양은 환히 웃으며 동녘에 떠오른다. 어머니 얼굴에도 인젠 환한 웃음이 비졌다.



바다의 색깔

기차는 빠르다
빠른것은 비행기다
비행기는 높다
높은것은 하늘이다
하늘은 푸르다
푸른것은 바다다

예닐곱살때 나는 어머니품에서 이 동요를 배우며 꼬치꼬치 캐여물었다.

“엄마, 바다는 얼마만큼 크나? 어디 있나? ...정말 푸르나?”

“바다는 너무 커서 셀수 없단다. 아주 먼데 있지. 저 하늘을 봤지.”

“엄마, 나도 바다를 볼수 있나?”

“크면 볼수 있지.”

어머니는 동심으로 맑은 내 가슴에 바다에 대한 한없는 동경을 심어주셨다. 빨리 커서 바다를 봤으면 하는것이 어린 나의 소원이었다. 자라면서 나는 영화화면과 책을 통해 눈으로



바다를 익힐수 있었다. 가없이 넓고 푸른 바다위에 돛배 한척이 유유히 떠있는 장면은 한폭의 그림이 되어 내 머리속에 박혀졌다. 그럴수록 바다에 대한 동경은 절박해만 갔고 상상은 생생해만 갔다.

대학시절 졸업여행이란 행운이 우리들한테 차례졌다. 북경에서 한주일간 구경에 지쳤던 동학들은 북대하로 떠난다며 법석거렸지만 나만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왜, 넌 바다구경 안갈래?”

“가봐야 그저 푸른 물이겠지 뭐.”

심드렁히 던진 말이었지만 가슴속에 서리는 서운함만은 달랠 길이 없었다. 돈이 없어 바다의 유혹을 회피해야 했던 내 아린 마음을 동학들은 어찌 알았으랴.

그런데 딱 10년후인 작년, 다시한번 바다구경할수 있는 행운이 찾아왔다. 남대하에 있는 전국부녀간부양성기지로 학습가게 된것이다. 이번에는 무작정 떠나기로 작심했다. 그래서 다섯돌 되도록 엄마품을 떨어진적 없는 딸애를 떼여두고 동생아이의 첫돌 생일날아침에 북경행렬차에 몸을 실었던것이다.

기차에 앉아서도 뺄스에 앉아서도 내 마음속에는 온통 바다밖에 없었다.

“야, 바다다!”

문득 누군가 환성을 질렀다. 그 소리에 웬 일인지 나는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애시적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겠구나 생각하니 긴장과 흥분이 가슴에 엄습해왔다. 나는 서둘러 차창에 눈길을 박았다. 순간 형언할수 없는 실망이 흉벽을 때릴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누군가에게 우롱당한 기분이었다. 내 눈에 들어온 바다는 가없긴 해도 푸르지는 않았다. 희뿌연 바다였다.



그리운 아카시아나무

어쩌면 이럴수가 있을까? 눈물까지 절끔 났다. 그러다가 유리 빛때문일거야, 파도탓일거야, 이런저런 구실로 자신을 달래면서 허물어진 예쁜 상상을 다시금 쌓아보았다.

차에서 내리자 바람으로 나는 일행과 함께 바다가로 부지런히 다리를 옮겼다. 저앞에 바다가 보였다. 하지만 유리창이 없고 피로가 풀린 뒤건만 내 눈에 안겨오는 바다는 여전히 푸른 색깔이 아니라 분명히 회뿌연 색깔이었다. 시력이 0.8밖에 안되는 내 눈탓일가? 처음으로 내 눈의 색감에 의심까지 해보았다. 모래탑처럼 와그르르 무너지려는 상상을 애써 끌어안고 같이 간 일행들한테 곱씹어 물었다.

“여보세요, 저 바다물은 어떤 색깔이에요? 푸른 색깔이 아니지요? 어서 말해봐요.”

강박적이다싶이 들이대는 내 물음에 일행들은 어정쩡해있다가 두리뭉실하게 대답했다.

“글쎄, 푸른것 같지 않아요.”

“잘 여겨봐도 그냥 회뿌영게만 보여요.”

“정말 어째 회뿌영게 보일가?”

그러고보니 내 눈의 색감은 정상이었다. 순간 먼저번보다 더 큰 실망이 가슴을 메웠다. 나는 몸부림이라도 치고싶었다. 회뿌연 바다가 진정 원망스러웠다.

“먼데서 보니 회뿌영게 보일지도 몰라요. 가까이로 가보지요.”

실망에 굳어진 내 얼굴이 보기 민망스러웠던지 일행들이 나를 백사장으로 떠밀었다.

바다가에서 조무래기들이 열심히 모래탑을 쌓고있었다. 모래탑을 다 쌓으면 어느새 밀물이 말끔히 밀어가군 했다. 그러



면 조무래기들은 좀 물러앉아 다시금 모래탑을 쌓군 했다. 그 애들을 바라보노라니 가슴이 터치는 실망을 잠깐이라도 잊을수 있었다. 그 애들과 함께 모래탑을 쌓고싶었지만 서른도 넘는 어른이란 체신때문에 선뜻 나서질 못하고 그저 열정적인 관중으로 되어주었다. 문득 이 애들 눈에는 바다가 어떤 색깔로 보일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래탑쌓기에 열중해있는 애들의 정서를 깨뜨리고싶진 않았지만 묻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었다.

“애들아, 이 바다물은 무슨 색깔이니?”

생똥같은 내 물음에 애들은 눈이 울롱해졌다. 그러더니 별걸 다 묻는다는듯 히죽 웃고는 저 멀리 배가 있는 곳으로 달음박질 쳤다.

이때 바다가로 유람온듯한 한 여인이 말을 건네왔다.

“저 깊은 곳으로 가야 바다는 푸르게 보인대요.”

“정말이세요?”

여인은 긍정적으로 머리를 끄덕였다. 나는 2원을 주고 구명대를 세웠다. 장방형모양의 구명대에는 사람이 셋씩은 었드릴수 있었다. 나는 같이 간 두 일행과 함께 구명대에 었드렸다. 구명대는 바람따라 물결따라 깊은 물로 서서히 떠갔다. 꽤나 깊은 곳까지 오자 갑자기 무서워졌다. 그래서 바다에서 헤엄치는 한쌍의 런인들한테 구원을 청했다. 그런 경황에서도 바다물을 여겨보는것만은 잊지 않았다. 키넴게 깊은 곳까지 떠왔지만 바다물은 그냥 희뿌옇게 안겨왔다.

그날 섭섭한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온 나는 예쁘게 가꿔온 내 상상때문에 서글펐다. 그러면서도 시인들마저 푸르다고 노래한 바다가 왜 희뿌옇게 보일가 하는 의문만은 좀처럼 털어버릴수 없었다. 그 의문을 안고 나는 혼곤히 잠들었다.



그리운 아카시아나무

이튿날아침, 바다의 해돋이를 보러 간다며 일행들이 서두르는 바람에 나는 잠자리도 미처 거두지 못하고 따라나섰다. 아침의 백사장은 시원했다. 우리는 어제 조무래기들이 모래탑을 쌓던 그 자리를 찾아왔다. 하지만 바다물이 대여섯메터나 들어와있다고 보니 깨끗하던 바다물위에 먹다 던진 옥수수깡이며 더러운 휴지 같은것들이 둥둥 떠있었고 밀바닥에는 조개껍질 외에도 깨진 맥주병조각들이 깔려있었다. 순간 나는 바다물이 희뿌옇게 된 원인을 알것 같았다. 바다물은 원래 푸른 색깔이었는데 저 더러운 오물들에 물들어 희뿌옇게 색바랜것이였다. 남들은 이것을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난 꼭 그렇다고 단정을 내렸다. 밀물과 썰물은 이런 오물들을 거부하는 바다의 몸부림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바다가 불쌍했다. 해어와 해초들을 키워 인간들에게 복을 안겨준 바다였지만 원래의 색깔을 잃어야 하는 바다가 정녕 불쌍했다. 바다를 아낄줄 모르는 인간들이 패썹했다. 이제 나처럼 바다를 두고 엮었던 예쁜 상상이 깨져 실망할 딸애가 가엾게 느껴졌다. 딸애를 키우며 나는 어머니가 나한테 배워주었던 동요를 그대로 딸애한테 배워주었고 그 애의 작은 머리에 바다는 푸르다는 개념을 심어주었던것이다.

나는 남대하로 온것이 후회되였다. 그냥 그대로 예쁜 상상을 품고 사는것이 훨씬 멋스러운 삶이 아니였을가! 문득 나는 소리소리 웨치고싶었다.

“바다의 색깔을 돌려주라!”

《천지》1993년 1호



게으른 엄마

초녀시절 “큐리부인전”을 읽으며 나는 감명이 컸다. 그런데 그 감명은 과학자로서의 큐리부인이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큐리부인이었다. 자신의 총명여부에는 꽤나 명석한 판단력을 가지고있는 나는 과학자의 꿈은 자신에게 당치도 않다는것을 너무도 똑똑히 알고있었다. 하기에 과학자로서의 큐리부인은 나 자신과 십만 팔천리나 떨어져있었다. 그렇지만 어머니로서의 큐리부인은 나 자신과 그렇게 가까울수가 없었다.

과학연구에 그렇게 드바빠 보내면서도 큐리부인은 두 딸 애한테 어머니일기를 써주는것을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큐리부인이 쓴 어머니일기의 갈피갈피에는 딸들의 성장발자국들이 또렷이 찍혀있었다. 그 일기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어머니의 귀중한 선물이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이런 일쯤은 할수 있으리라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수집을 많은 처녀의 몸으로 어머니일기를 쓸 생각을 한다는것이 여간만 부끄러운 일이지만 말이다.

미구에 나는 시집을 갖고 귀여운 딸애의 어머니로 되었다. 딸애를 임신했을 때 나는 일부러 귀염둥이들의 사진이 박힌